



해외지역정보

폴란드

은행간 인수·합병으로 외국 자본이 금융 부문을 지배

폴란드의 금융 시스템은 은행산업의 고도 성장과 지속적인 은행간 인수·합병 및 높은 수준의 외국인투자 유입을 바탕으로 지난 10여 년간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는 구조로 개선되었으며, 선진 금융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함으로써 폴란드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 폴란드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외국 자본의 유입에 의한 은행간 인수·합병에 따른 금융 부문의 대외종속에 대한 반감이 차츰 커지고 있으나, 외국

계 은행들의 주도로 금융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외국자본에 의한 금융 부문의 인수·합병

폴란드중앙은행(NBP)에 의하면 2001년도 폴란드의 금융 부문 총자산은 4,770억 즐로티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였는데, 이는 1999년의 14% 및 2001년의 17.9%에 비해 그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이다. 그러나 GDP 대비 금융 부문 자산 비중은

〈표 1〉 2001년도 폴란드의 은행 부문 변동 현황

일자	주요내용
1. 5	BIG Bank와 그 모은행(母銀行)인 BIG Bank Gdanski 합병
3. 1	Citibank Poland와 Bank Handlowy w Warszawie 합병
5. 9	Baltycki Bank Regionalny와 Gospodarczy Bank Wielkopolski 합병
6. 14	Bank Zachodni와 Wielkopolski Bank Kredytowy 합병
9. 21	네덜란드계 Slaski Bank Hipoteczny 영업 개시
10. 1	ING Bank 바르샤바 지점과 ING Bank Slaski 합병
10. 8	스웨덴계 Bank Svenska Handelsbanken(Polska) 영업 개시
11. 9	ING Bank Slaski가 Wielkopolski Bank Rolniczy를 인수
12. 21	Bank Wlasnosci Pracowniczej-Unibank와 Nordea Bank Polska 합병

자료: EIU.

2000년 62.1%에서 2001년에는 66.1%로 높아졌다.

한편, 은행간 합병에 의해 금융시장에서는 소수 대형은행들의 점유율이 높아졌고 상업은행의 숫자는 줄어들었다. 1990년대 들어 미국과 서유럽의 대규모 금융자본이 주도한 은행간 인수·합병이 활발히 추진된 결과, 현재 폴란드의 은행들 중 내국계로 분류되는 은행은 국영 소매금융기관이자 폴란드 최대 은행인 Powszechna Kasa Oszczednosci Bank Polski(PKO BP), 국영 정부은행인 Bank Gospodarstwa Krajowego(BGK), 국영 우편저금기관인 Bank Pocztowy, 그리고 Bank Gospodarki Zynwnosciowej(BGZ) 등 4개에 불과하다.¹⁾

외국계 은행들의 과도한 진출에 대한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의식한 카츠마렉(W. Kaczmarek) 재무장관은 국영은행들에 대한 외국 자본의 추가적인 인수·합병을 막겠노라고 거듭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구조개혁이 시작된 1989년 이후 현재까지 은행 자산의 60% 가량이 외국 금융기관에 매각되어, 금융 부문의 대외종속 현상은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금년 5월 폴란드 정부는 2006년까지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동 계획에 따르면 PKO BP, BGZ 및 Bank Pocztowy 등 3개 은행의 바르샤바 증권

거래소 상장을 위해 이들 은행에 대한 최초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s)가 실시될 예정이다. 비록 정부는 이들 은행들이 앞으로도 계속 정부의 통제하에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장이 이루어진 뒤에도 정부가 이들 은행을 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²⁾

금융 부문의 대외종속에 대한 우려와 반감 고조

2001년 말 현재 총 14개국 투자자들이 폴란드의 금융 부문에 진출해 있는데, 국가별로는 독일과 미국이 각각 13억 800만 즐로티와 11억 6,770만 즐로티를 투자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포르투갈이 5억 즐로티 이상,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4억 즐로티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금액 중 43.2%는 순수 외국자본에 의한 은행 설립에, 54.6%는 국내 은행의 다수지분 확보에 각각 투자되었다.

폴란드 내 최대 외국계 은행은 이탈리아의 Unicredito Italiano가 경영권을 보유하고 독일의 Allianz Group이 지분을 공유한 Bank Pekao로, 2001년 말 기준 시장점유율 15.38% 및 총자산규모 734억 즐로티를 기록하여 PKO BP에 이은 폴란드 제2위의 은행이다. 이 밖에도 BPH PBK(독일 HVB), Bank Handlowy(미

1)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은행들인 PKO BP와 BGZ는 2001년 말 기준 자산규모가 각각 797억 5,000만 즐로티 및 180억 즐로티임.

2) 폴란드 재무부는 1999년부터 PKO BP, BGZ 및 BGK를 직접 통제하고 있으며, Bank Pocztowy, Bank Rozwoju Mieszkaniowego(BGK의 자회사), Bank Ochrony Srodowiska(스웨덴의 Skandinaviska Enskilda Banken이 지분 참여) 및 Wschodni Bank Cukrownictwa를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음.

〈표 2〉 외국인투자자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폴란드의 은행 현황 (2001년 말 기준)

구	분	은행 수
100% 외국계 자본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은행 ¹⁾		17
외국은행 지점		1
외국계 지분이 다수인 은행 ²⁾		20
민영화 또는 자본 유입을 통해 인수한 은행		16
합	계	54

주: 1) 그 중 4개 은행은 최초의 설립자(내국계)로부터 인수하였음.

2) 그 중 4개 은행은 외국계 파트너와의 합작으로 설립되었음.

자료 : EIU.

국 Citicorp), ING Bank Slaski(네덜란드 ING) 및 Bank Zachodni WBK(아일랜드 Allied Irish Bank) 등이 주요 외국계 은행으로 꼽힌다.

2001년 말 현재 폴란드 내 은행 중 외국인투자자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은행은 54개이다(〈표 2〉 참조). 이는 숫자상으로는 폴란드 전체 상업은행(71개)의 76%에 해당하며, 이중 46개 은행이 은행권 전체의 자본금 총액의 80.2% 및 총자산의 59.2%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이들 46개 은행은 총예금액(은행간 예금 제외)의 63.9% 및 총대출잔액의 71.3%를 점유하고 있어, 금융 부문의 대외종속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외국 자본의 금융 부문 지배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계 은행들, 맞춤형 금융 서비스의 도입으로 금융시장 발전을 주도

그러나 외국계 은행들이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하고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여 금융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폴란드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주도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일례로, 2000년 들어 외국계 은행들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등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용해 오고 있다. 그전부터 많은 은행들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자금 대출 및 기업수익 운용을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이는 주로 대기업에만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은행간 경쟁이 날로 격화되는 와중에서 신규 고객의 확보를 위해 특화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폴란드 최대의 외국계 은행인 Bank Pekao는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및 소농(小農)을 대상으로 하는 'Eurokonto Business Account' 패키지와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Business Leader Account' 패키지 등 2종의 맞춤형 금융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각 패키지는 내국통화 당좌계정, 법인 신용카드, 대출, 예금, 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일 HVB 산하 Bank Przemyslowo-Handlowy-PBK도 기업을 대상으로 유사한 형태의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고객은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도 환어음, 수표, 약속어음 등의 발행 및 채권 매입 등의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다.

【吳 昊 駟】